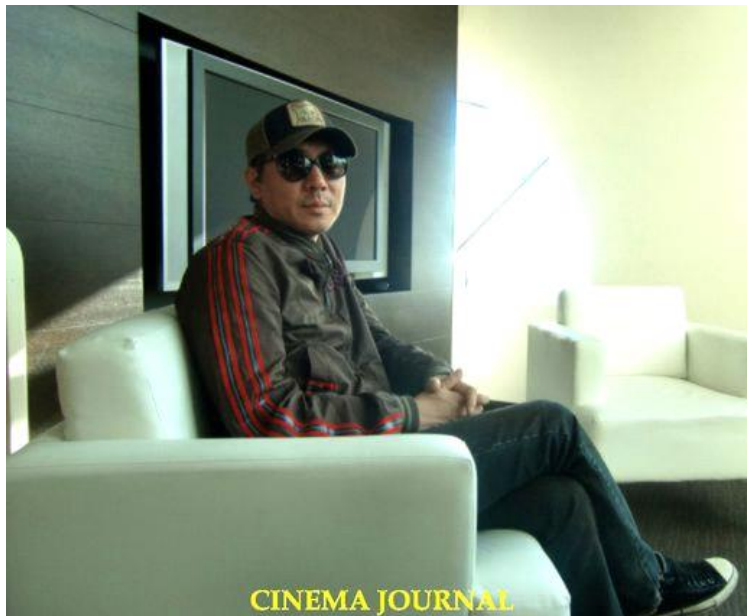


2010年9月14日 トロントにて

2010년 9월 14일 토론토에서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 (2) 監督インタビュー

김지운 감독「악마를 보았다」제 35 회 토론토 국제 영화제 (2) 감독 인터뷰



北米プレミアとなる夜の公式上映の日の午後、作品について、韓国映画の日本での広報について、そして今後について語っていただきました。

북미 프리미어의 밤의 공식 상영의 날 오후, 작품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한국 영화의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シネマジャーナルではまだ「韓流」という言葉が一般的ではなかった2000年より前のデビュー作である『クワイエットファミリー』から監督の取材を続けています。読者にもその作品ファンの多い特別に親しい監督です。

시네마저널에서는 아직 한류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던 2000년 감독의 데뷔 작품인 <Quiet family,1998> 부터 감독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작품의 팬이 많고 특별하게 가깝게 느껴지는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注)記事には作品の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特にエンディングについてかなり具体的に解説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ので、ご了承の上お読みください。

(주) 기사에는 작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 양해하시고 읽어 주십시오..

9月14日の公式上映の舞台挨拶と質疑応答の様子はこちらでどうぞ。

参照:シネマジャーナル Web 特別記事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

(1)北米プレミア〜<キムチ・リベンジ・スリラー> 観客の喝采を受ける」

9월 14 일에 공식 상영의 무대인사와 인터뷰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 시네마저널 HP 기사 <[악마를 보았다] 제 35 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1)북미프리미어 [김치·복수·스릴러] 관객의 갈채를 받다.>



<オリジナル編集版上映>

<오리지널 편집판 상영>

Q: 韓国封切り前には映像物等級認定の検閲で部分的に削除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でした。昨日のプレス試写でノーカットのオリジナル編集版を見てきました。「わさび」を抜かない「寿司」になっていましたね。ストーリーラインとか感情の変化には影響がなく、映像だけ強烈になったように見えました。監督のお考えを聞かせてください

Q: 한국에서 공개되기 전에 영상물등급인정 검열 때문에 일부분 삭제 할 수 밖에 없었고, 어제 프레스 시사회에서 오리지널 편집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와사비를 빼지 않은 스시 (와사비가 들어간 스시)되었다고 할 수 있네요. 스토리 라인과 감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없이 영상만 더 강렬하다고 느꼈는데, 감독님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私もそのことが映画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は考えていません。ただ、観客に与える映画のリズムや味わいというのが少しだけ変わ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A:저도 그게(검열이)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영화의 리듬이나 영화의 맛이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Q:ここ数年は監督の作品が本当に多くの海外の映画祭へ招聘されて、外国の観客やメディアの間で好評を得ていますね。この作品が韓国で厳しく検閲されたことによって、たくさん思うところがおありになったと思いますが、次の作品は外国で制作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高まりましたか？

Q:수년전부터 감독님의 많은 작품이 해외 영화제에서 소개되고, 해외 관객과 매디어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계시죠. 한국에서 이 작품에 대한 검열이 심했던 점에 대해 감독님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 작품은 해외에서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A:具体的な予定はまだ協議中ですが、韓国での映像物等級審査での苦勞が理由というだけではなく、どんな製作者や監督でも自分の作品がより広い世界を舞台としてより多くの観客に見てもらいたい願望がありますね。

A:구체적인 예정은 아직 협의중 이지만, 한국에서 영상물등급검사에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작자나 감독이라도 본인의 작품을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관객들이 봐 주시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エンディングの意味>

<결말 의미>

Q:この映画では残酷シーンを見せることが目的ではなくて、主人公たちの感情の変化を見せることに重きを置いて描かれましたね。

Q:이번 영화에서는 잔인한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변화를 카메라에 담는것에 중점을 두셨나요?

A:この映画を作る際に、もし自分がこの映画の主人公と同じ立場であったらということを考えることから始めました。それからこの映画では、一人の男のとても残酷な復讐について表現したかったのです。主人公の内面にある傷がどれほど大きく苦しいものなのかを表現することで、その残酷な復讐の意味を描きだしました。

A:이 영화를 만들 때 만약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한 남자의 가장 잔인한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함으로써 그 잔인한 복수의 의미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Q:エンディングに関して、記者個人の見解ですが、受け入れるのが難しく、たくさん疑問があります。罪の無い犯人の両親と息子にどうしてこれから生きていく間消えない苦しみを与え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犯人は死んでしまって苦しみを感ずることはなくなりました。結局苦しみが続くのは、残された家族とスヒョンだけ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ないですか？

Q: 결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웠고,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범인의 부모와 아들한테 왜 남은 시간 안에 절대 지워지지 못 하는 고통을 주어야 했습니까? 범인은 죽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없어 졌잖아요.. 결국 범인의 가족과 수현만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A: この映画は一人の男の悲しみについての物語です。この映画ではやられた分だけやり返すというのが復讐の目標になっています。死んだ人よりも残された人の苦しみをキョン Chol に知らせることが目標だったのです。しかしこの映画のアイロニーは悪魔を捕まえるためには自分自身が悪魔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です最後の場面でキョン Chol に暴力的な痛みを与えたのは、何をしてもこれ以上なんの意味もないと (スヒョンが) 考えたからなのです。家族の前でキョン Chol を殺したのは、まさにスヒョン自身が悪魔になった瞬間だったのですが、悪魔を捕えるためにはスヒョン自身が悪魔にならなくてはい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表現したのです。最後の部分でスヒョンがキョン Chol に「恐ろしいか? 怖いか? 自分という者がどんな奴かわかったか? 」と聞いたとき、自らキョン Chol に最後に質問することで悪魔と手を結ぶのではなく処刑することを願ったのに、キョン Chol はそれを拒否する結果になったのです。そして最後に「俺はお前が死んでも苦しんでほしい」というのは、それまでのようなキョン Chol に対する脅迫ではなく、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呪い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か…言い換えれば自分がキョン Chol を処刑するためには、悪魔になるしかないという呪いなのです。それから題名の『悪魔を見た』というのは、キョン Chol の意味とスヒョンが復讐の過程で悪魔に変わっていくという2つの意味があります。またスヒョンの復讐を通して感じられる、誰もが自分自身の中に持っている悪魔性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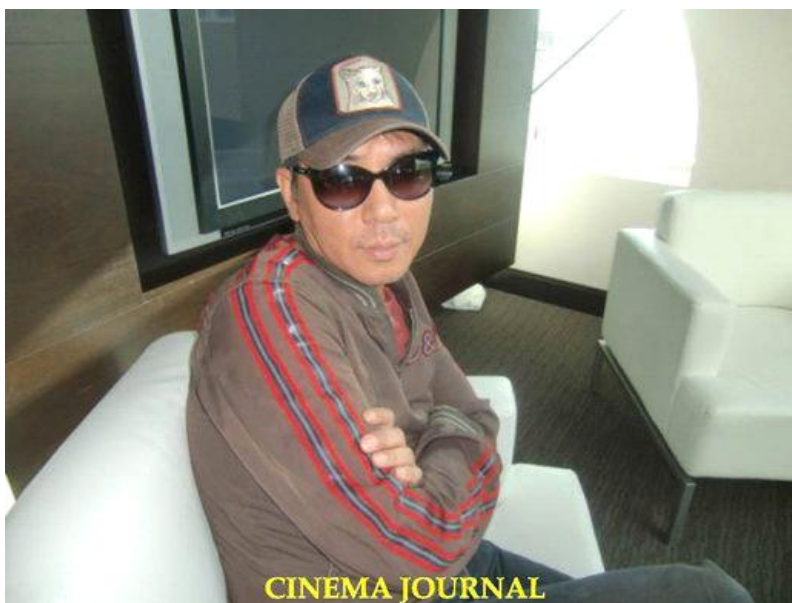
A: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복수의 목표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고통을 경찰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아이러니는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경찰에게 폭력적인 고통을 준 것도 뭘해도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구요. 그래서 결국 가족 앞에서 경찰을 죽이는 것도 수현이 악마가 된 순간인데 악마를 잡기 위해서 악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수현이가 경찰한테 <두렵니? 무섭니?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니?>라고 스스로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악마와 손 잡지 않고 처형하기를 바랬는데 결국 경찰이 그것을 고부하자는 거죠. 마지막에 나는 니가 죽어서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 동안 경찰한테 했던 협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까...다시 말하자면 수현은 경찰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것 입니다. 그리고 제목의 <악마를 보았다>는 경찰이라는 악마와 복수 과정에서 악마로 변해가는 수현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듯이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악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Q: もし私がシナリオライターであつたら、キョン Chol の家族を殺してキョン Chol の残りの人生を苦しいものにしたと思うのですが。

Q: 만약에 제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면 경찰의 가족을 죽이고 경찰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었을거예요.

A:私もそのようにも考えたのですが、残りの人生に長く続く苦痛というよりは、キョン Chol を処刑するほうがむしろ映画として薄暗いイメージが少なくなると感じてこのようなエンディングにしました。エンディングではキョン Chol をどのように処刑するかがポイントでした。

A: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경찰을 처단하는 것이 영화로써 침침한(짹짹한) 이미지가 덜 들것 같아서 그런 결말로 했습니다. 결말에서는 경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日本での公開について>

<일본 공개에 대해서>

Q:いままでの監督作品の日本での宣伝について、率直かつ正直な感想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

前作の『Good Bad Weird』も今回の『悪魔を見た』も有名な韓流スターをキャスティングしているので、日本のマーケットでの商業的な利害も考慮されていて仕方がないともいえます。でも、日本には、質の高い作品重視の映画マニアがたくさんいるのに、今の韓流スターの人気という側面を強調したプロモーションでは一部の観客だけしか映画館に呼べ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を感じます。

Q:일본에서 한국영화를 선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Good Bad Weird> 도 <악마를 보았다>도 유명한 한류스타가 나오는 작품이니까 일본 마케팅에 있어서 영화의 상업적인 이해가 고려되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영화의 질을 중요시하는 영화 매니아가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인기있는 한류스타라는 측면에서 프로모션을 한다면 결국 일부 관객들만이 영화관을 찾는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A:今のようなプロモーションで一時的に観客を集めることはできるでしょう。しかしそのせいで、実は映画というのはその内容が大切なのに、韓流スターが出演している映画があたかも韓国映画の代表作であるかのように紹介されています。それは韓国映画を(本質から)遠いものにしてしまう理由であるように思います。それから韓流スターが出演している映画が高く売れるので、悪循環を作り出してしまうのでしょう。本当の映画ファンを失ってしまう状態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A: 지금같은 프로모션으로 일시적으로는 관객들을 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용이 중요시되어야 할 영화 본연이 모습이 아니라 한류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가 마치 한국영화의 대표작처럼 소개됩니다. 그게 한국영화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류배우가 기용된 영화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 될 수 밖에 없겠죠. 진짜 영화 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버리는거구요.

Q: 韓流スター人気を前面に出さないで、監督が前面に立って来日し、作品重視のスリラー&ホラー映画マニア向けにもプロモーションしたり、また『悪魔を見た』と似たような残酷スリラー映画の監督と対談したりするのはいかがでしょうか？

Q: 한류스타의 인기를 내세우지 않고, 감독님의 이름을 내세워 일본에 오셔서 작품을 중요시하는 스릴러& 공포 영화 마니아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하시거나, 아니면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잔혹한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만나 대담을 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A: ははは。。。それはだめですよ。僕は怖い映画は苦手だから(笑)

A: 하하하(웃음) 그건 않되죠.. 전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웃음)

<将来の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장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Q: イ・ビョンホンさんとは 撮影過程でどういう会話がありましたか？

Q: 이 병헌씨하고는 촬영 중에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A: 今回のような役は、自分の内面にある残酷性などを表面に出して表現しなくてはいけない。自分の感情が一番高い水準で表現しなくてはいけないです。その演技を3ヶ月の間維持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のは、本当にたいへんだったと思います。彼はこの映画の復讐という部分を痛快だが、血が通っている復讐であると理解していました。

A: 이번 역할은 자기자신의 내면에 있는 잔인성을 바깥에 노출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않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가장 높은 절정을 표현해야 하니까요. 그 연기를 3개월 동안 유지해야 했던 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헌씨는 이 영화의 복수에 대해서 통쾌하지만 그 내면은 아직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는 복수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Q: イ・ビョンホンさんが、監督といつか恋愛映画を作業したいと希望しているのはご存知ですか？どういうストーリーを考えてあげたいですか？

Q: 이병헌씨가 다음 작품에서 감독님과 연애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떤 스토리를 선사하실건가요?

A: シナリオも何も無いし、撮影の時期とかまったく決まっていなけれど、タイトルだけは決めましたよ。

A: 아직 시나리오도 없고 촬영 예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목은 결정했어요

Q: タイトルだけ教え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

Q: 제목만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A: 『サランヘヌデ』 愛したが (通訳: We loved once.)

A: 『사랑했는데』

@ @ @

唐突な発言に驚きましたが、また二人の共同作業があるかもしれないことに、嬉しくて期待が高まります。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랐지만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撮影の片付けをしながら雑談しているときに、「イ・ビョンホンさんが、いつまでたっても日本でアイドル的扱いを受けているのが少し残念です」とつぶやいたら、インタビューの間、どんな質問にも大げさな反応を一度も見せなかった監督が、大きく3回頷いて「彼は演技者だよ」と静かにおっしゃったのが印象的でした。

촬영을 마친 후 잡담 중에 본인이 「이 병헌씨가 지금도 일본에서 아이돌 같이 취급 받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네요」라고 했을 때 인터뷰중에 어떤 질문에도 한번도 큰 반응을 안 보여 주었던 감독님이 크게 3번 끄덕거리면서 「이 병헌씨는 연기자죠」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どちらの映画も一日も早く日本で公開されるよう祈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어떤 영화이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서 공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取材/文 : 祥)

『悪魔を見た』 関連別記事:

(Related Article on HomePage)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8月12日 韓国封切初日

(Aug.12, Korea Release day)

<http://www.cinemajournal.net/special/2010/akumawomita/index.html>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 (1) 9月14日 北米プレミア

(Sep.14 North America Premier @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ttp://www.cinemajournal.net/special/2010/akumawomita2/index.html>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 (2) 9月14日 監督インタビュー

(Sep.14 Kim JeeWoon Interview @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ttp://www.cinemajournal.net/special/2010/akumawomita3/index.html>

[return to top](#)

本誌「シネマジャーナル」及びバックナンバーの問い合わせ: order@cinemajournal.net

このHPに関するご意見など: info@cinemajournal.net

このサイトの画像・記事等の無断転載・無断使用はご遠慮下さい。

이 사이트의 화상기사등의 무단 전재·무단 사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

掲載画像・元写真の使用を希望される場合はご連絡下さい。

게재 화상·원사진의 사용이 희망되는 경우는 연락해 주세요.